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도
석사학위 논문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의 상관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황 지 유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의 상관

Relations Among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황 지 유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의 상관

지도교수 전 희 정

이 논문을 언어병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황 지 유

황지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부교수	<u>신 문자 (인)</u>
위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u>표 화 영 (인)</u>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u>전 희 정 (인)</u>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정리	4
II . 이론적 배경	6
1. 전반적인 말더듬 평가	6
가.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	6
나. 주관적인 말더듬 평가	9
다.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인 말더듬 평가 간 상관	13
2. 말더듬과 불안	15
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내면적 특성	15
나.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16
다.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18
III .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20
가. 대상자 선정기준	
(1) 학령기 말더듬 아동	20

- (2) 학령기 일반 아동..... 20
- 2. 검사도구 21
- 3. 연구절차 25
 - 가. 자료수집 25
 - 나. 자료분석 26
- 4. 신뢰도 28
- 5. 자료의 통계 처리 29

- IV. 연구 결과 30
 - 1.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불안수준 비교 결과 30
 - 2.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분석 결과..... 32
 - 3.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33

- V. 논의 및 결론 36
 - 1. 연구결과 요약..... 36
 - 2. 논의..... 37
 -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45

- 참고문헌 46

- 부록 55

표 목 차

<표 - 1>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배경정보	21
<표 - 2>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30
<표 - 3>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상태불안 점수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31
<표 - 4> 총 AD비율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분석 결과	32
<표 - 5> 총 AD비율과 특성불안,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33
<표 - 6>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 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34
<표 - 7>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분석 결과	35

그림 목 차

<그림 - 1>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 분포 비교	30
<그림 - 2> 아동 집단 간 상태불안 점수 분포 비교	31
<그림 - 3>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간 산포도	34

부 록 목 차

<부록 - 1>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검사지	55
<부록 - 2>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검사지	56
<부록 - 3> 아동용 특성불안 척도(TAI-C)	58
<부록 - 4> 의사소통태도 검사(CAT-R)	59

ABSTRACT

Relations Among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s in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Hwang JiYu

Advisor : Prof. Chon HeeCheong, Ph.D.

Department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school-age CWS) can experience negative responses of listeners or fluency failures of in various verbal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this would bring internal anxiety or burden on their own speech. Therefor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hould consider children's own thoughts(subjective perspective) toward stuttering as well as overt stuttering symptoms refle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core behaviors and struggle behaviors when evaluating children who stutter. In add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transfer or maintain achieved fluency through speech therapy unless proper resolution of anxious feelings, which could predict negative influence on prognosis of 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the degree of trait anxiety and speech-related state anxiety between school-age CWS and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2) to seek relation between overt stuttering severity an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of school-age CWS, and (3) to seek relation among overt an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ies, characteristics of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Participants were 15 school-age CWS and 16 CWNS. To measure the overt stuttering severity of CWS, the ratio of abnormal disfluencies(AD ratio) was used, and the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was measured through 10cm- visual

analog scale(VAS) by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overall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and task-relate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Th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TAI-C) was used to measure trait anxiety and the Speech Situation Checklist-Emotional Reaction(SSC-ER) was used to measure speech-related state anxiety. The Communication Attitude Test-Revised(CAT-R) was used to identify communication attitudes of C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chool-age CWS and CWNS in the degree of trait anxiety but CW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speech-related state anxiety than CWNS. (2)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ask-relate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overall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and AD ratio. (3) AD ratio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xiety levels and communication attitude scores of CWS. By contrast, overall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it anxiety($r=.567$), and speech-related state anxiety($r=.703$).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task-relate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In addi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d the task-related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was $-.536$ showing negative correlation. (4)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rait anxiety, speech-related state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rait anxiety and the speech-related state anxiet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nxiety level observed in verbal communication situation of school-age CW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WNS a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subjective stuttering severity perceived by CWS and anxiet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needs to consider the level of anxiety occurred in verbal communication situation as well as evaluation reflected subjective perspective to evaluate and mediate school-age CWS. It is considered to expect to improve fluency of children who stutter when the desensitization toward communication or situation related to speech which increases anxiety of each children who stutt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성 말더듬(developmental stuttering, 이하 말더듬)은 주로 2-5세 사이의 아동기에 시작되는 말장애이다. 말더듬은 다른 의사소통장애와는 달리 말더듬이 시작된 아동 중 최대 80% 가량이 말더듬에서 자연회복(natural recovery)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Yairi & Ambrose, 2005). 말더듬이 자연회복 되지 않고 지속되는 아동은 말더듬이 만성화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실패나 청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말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Vanryckeghem & Brutten, 1997). 특히 말더듬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의사소통 상황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학령기가 되면 가족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머물던 유아기와 달리 또래 아동과 선생님과 인간관계가 확장되고(안경숙, 2001),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은 대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적절한 질문과 설명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배선영, 2000). 또한, 학교에서 발표하기, 소리 내어 읽기 등 공적인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어 의사소통이 또래관계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말더듬 아동은 말더듬으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로 자신의 말더듬이 또래 및 선생님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지 않을까 미리 걱정할 수 있고(Mckinnon, Hess, & Landry, 1986), 우려했던 일을 실제 구어 상황에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면적인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한 진, 2010). 따라서 말더듬 성인뿐만 아니라 말더듬 아동 평가 시에도 언어재활사는 말더듬은 사람에게서 관찰 가능한 핵심행동, 투쟁행동의 양적·질적 특성이 반영된 외현적(overt) 말더듬 특성과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전희정·스콧야루스, 2015; Manning, 2010). 대상자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인 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간의 관련성을 살핀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Manning & Beck, 2013). 이는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핵심행

동과 관련한 대상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형성되기 때문
 일 것이다(전희정·스콧야루스, 2015). 즉, 자신의 말에 대해 스스로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정도나 다양한 상황에서 말더듬으로 인한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혹은 청자의 반응을 경험하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말더듬 특성 및 중증도 파악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주관적 말더듬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Manning & Beck, 2013).

또한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은 의사소통태도와 관련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차 현, 2015; Vanryckeghem &
 Brutten, 1996). 따라서 말더듬 아동이 자신의 말더듬 정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
 단하고 있는지,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이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 및 말에 대한 태
 도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말더듬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
 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불안은 크게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는데(Spielberger, 1983), 상태불안
 (State Anxiety)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불안으로 특정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
 는 불안인 반면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한 개인이 특징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
 유한 불안 수준을 말한다. 상태불안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 특성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고영옥, 2009). 말더듬과 불안에 관한 연구들
 은 주로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대체로 일반 성인에 비해 말더듬
 성인의 불안 정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Ezrati-Vinacour &
 Levin, 2004; Fitzgerald, Djurdjic, & Maguin, 1992). 반면에, 학령기 말더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 정도를 살핀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학령기 말더듬 아동
 및 청소년 집단이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 비해 특성불안 정도가 높았다고 보
 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예: 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 Mulcahy, Hennessey, &
 Beilby, 2008), 두 집단 간 특성불안이나 상태불안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예: Andrews & Harris, 1964; Craig & Hancock,
 1996).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말더듬 성인이 취업, 면접,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
 생활에서 말과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에 장기적으로 직면해온 것에 비해 말더듬 아
 동은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빈도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수준과 말더듬 중증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일관

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 Blood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인 중증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에 매우 높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Ezrati-Vinacour & Levin, 2004), 학령기 말더듬 아동 역시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나 의사소통태도가 정서적 불안과 더 높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외현적인 말더듬 특성과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인 중증도, 의사소통태도 및 정서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정서적 측면인 불안은 말더듬 성인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역시 일관되지 못하였다. 정서적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감정이 개인에 맞게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 치료를 통한 유창성 획득이나 치료실 내에서 일상생활로의 유창성 전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치료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불안 수준과 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이 느끼는 특성불안 및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상태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성, 그리고 불안특성과 외현적,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및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1)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 집단 간 상태불안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나.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이 있는가?

다.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외현적, 주관적)와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이 있는가?

- (1)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이 있는가?
- (2)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이 있는가?
- (3)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이 있는가?

3. 용어 정리

가.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행동을 토대로 평가한 말더듬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P-FA-II,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의 비정상적 비유창성(Abnormal disfluency) 비율을 사용하여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였다.

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말더듬 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말더듬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성(variability)을 고려하여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2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다. 특성불안(Trait anxiety)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한 개인이 특징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불안 수준을 말하며,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일생동안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조수철·최진숙, 1989). 하지만 상태불안이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어 특성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강민정, 2007).

라. 상태불안(State Anxiety)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개인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불안을 의미하며, 시간, 상황에 따라 불안의 정도 및 강도가 다양하다(조수철·최진숙, 198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을 측정하였다.

마. 의사소통태도(Communication Attitude)

의사소통태도는 자신의 말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 또는 태도를 말하며, 의사소통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반적인 말더듬 평가

말더듬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자마다 다양한 말더듬 이론과 모델 및 정의를 사용하여 말더듬을 설명하고 있다. Van Riper(1982)는 말더듬 행동과 더불어 말더듬을 보이기 전, 말더듬이 나타나는 동안, 그리고 말더듬 후에 나타나는 말더듬에 대한 대상자 스스로의 반응을 포함하여 말더듬을 정의하였으며, Wingate(1964) 역시 말더듬 정의에 말더듬 행동과 말더듬은 사람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또한, Silverman(1996)은 말더듬의 표면적 특성보다 말더듬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즉, 말더듬으로 인해 사회에서 겪었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이 개개인의 말더듬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했을 때, 말더듬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말더듬 행동의 특성과 말더듬은 사람의 내면적 특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더듬 평가 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행동뿐만 아니라 말더듬 대상자 본인의 심리·정서적 반응이나 느낌, 태도, 그리고 말더듬에 대한 생각 등을 파악하여야만 개개인의 말더듬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전희정·스콧야루스, 2015). 게다가 말더듬 중증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평가자 이외에도 말더듬은 사람 본인이 자신의 말더듬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술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Manning, 2010).

따라서, 장애로서의 말더듬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뿐만 아니라 말더듬은 사람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상자의 말더듬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

외현적 말더듬 평가는 말더듬 유무와 중증도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결정 및 치료 효과 확인 등을 위한 임상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언어재활사는 비유창성의 양적,

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투쟁행동 등을 관찰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말더듬을 평가한다. 또한, 정상적 비유창성과 말더듬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말더듬 시작 시의 특성 및 말더듬의 지속, 회복, 진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적 관점에서도 외현적 말더듬 평가가 필수적이다(Yairi & Ambrose, 2005). Manning(2010)은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관찰 가능한 양적 측면인 말더듬 행동의 빈도뿐 아니라 질적 측면인 말더듬 행동의 유형 및 지속시간, 말더듬 발생 시 나타나는 긴장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의 경우, 크게 비유창성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측정하여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하지완·이은주, 2009), 이 중 비유창성 측정을 통한 중증도 산출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비유창성 측정 방법에도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빈도만을 측정하여 말을 더듬은 음절의 비율(%SS: Percentage Syllables Stuttered)을 계산하거나(Craig, 1990; Craig & Hancock, 1996; Ezrati-Vinacour & Levin, 2004; Mulcahy et al., 2008) 분당 더듬은 단어의 수(SW/M: Stuttered or Stuttering words per minute)등을 산출하는 방법(Ryan, 1971; Ryan & Van Kirk, 1974)이 있다. 더불어 비유창성을 정상적 비유창성과 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 나누어 정상적 비유창성을 중증도 산출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 비유창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등이 있다. 또한, 말더듬 빈도뿐만 아니라 말더듬 순간의 지속시간, 반복에서 관찰되는 단위반복수, 시각적 긴장 동반, 투쟁행동 등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질적인 측면의 측정 역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산출 시 사용되고 있다(Boey et al., 2007).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이하 P-FA;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04)와 말더듬 중증도 검사(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이하 SSI; Riley, 1972)를 사용하여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하고 있다. 먼저, P-FA는 취학전 아동, 학령기 아동, 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2004년에 표준화된 후, 2010년 재표준화를 거쳐 제 2판이 출시되어(P-FA-II,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사용되고 있다. P-FA-II는 필수과제 및 선택과제를 통해 정상적 비유창성(Normal disfluency)과 비정상적 비유창성(Abnormal disfluency)을 분석하고, 비유창성의 빈도 및 비율을 산정한 후 총 점수를 통해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약함’, ‘중간’, ‘심함’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말더

들 대상자가 보이는 신체적 부수행동을 관찰하여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과 연구 목적으로 말더듬 유무를 진단하고,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결정하기 위해 P-FA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예: 김우정, 2012; 서수진, 2014; 이순옥, 2010; 이은지·신명선, 2013; 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SSI는 말더듬 중증도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Manning, 2001), 1972년 개발되어 현재 말더듬 중증도 검사 제 4판(이하 SSI-4; Riley, 2009)이 출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SSI-4는 구어과제를 통해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분석하고, 말더듬 빈도, 말더듬의 지속시간 및 신체적 부수행동을 점수화하여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매우 약함’부터 ‘매우 심함’의 5단계로 평가한다. SSI는 국내외 연구 및 임상에서 말더듬 여부 결정 및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Manning, 2001; Van Riper, 1982), 정상적인 비유창성을 분석하지 않고, 비정상적 비유창성만을 분석하여 중증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말더듬 중증도가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Howell, 2013), 하위요인인 말더듬 빈도, 지속시간, 신체적 부수행동이 장애로서의 말더듬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전희정, 2014).

이 외에도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유창성 인터뷰(Fluency Interview, 이하 FI; Ryan, 2001)와 일리노이 임상가용 말더듬중증도 척도(The Illinois Clinician Stuttering Severity Scale, Yairi & Ambrose, 2005, p. 32) 등이 있다. FI는 자동구어, 따라말하기, 읽기, 독백 등을 비롯한 10가지의 다양한 구어상황에서 분당 더듬은 낱말 수(SW/M)와 분당 음절 수(SPM: Syllables per minute), 말더듬 형태분석을 통해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산출할 수 있다. Ryan & Van Kirk(1974)는 분당 더듬은 단어 수(SW/M)와 FI 점수 간에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Ryan(2001)은 FI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과제에서 얻은 발화 자료가 말더듬 여부 및 중증도 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리노이 임상가용 말더듬 중증도 척도는 검사자가 평가 상황에서 말더듬 빈도, 지속시간(혹은 단위반복수), 말더듬 발생 시 긴장 정도, 투쟁행동의 4가지 요소를 관찰하여 각 요소들의 점수를 낸 후 평균을 계산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정상에서 매우 심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Ambrose & Yairi(1999)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빈도, 말더듬 유형, 말더듬 규모(가중치)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하여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보다 민감하게 진단해줄 수 있는 가중말더듬지수(Weighte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Weighted SLD)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외현적인 말더듬 특성이나 중증도만으로 대상자의 말더듬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Plexico et al.(2009)은 SSI가 말더듬은 사람의 회피 행동, 말더듬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 평상시의 의사소통 문제, 말더듬으로 인한 제한된 일상생활 등과 같은 주요 특성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Smith(1999)와 Smith & Kelly(1997)는 말더듬 빈도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특성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말더듬을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Craig et al.(2003) 역시 말을 더듬은 음절의 비율(%SS)만을 사용하여 말더듬을 평가한다면 같은 %SS로 평가된 대상자들을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중증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은 말더듬을 진단하고 치료여부 및 치료효과를 결정하는 임상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말더듬 평가를 위해서는 외현적 평가와 더불어 말더듬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 주관적인 말더듬 평가

말더듬 대상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평가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가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말더듬과 관련된 특정 측면을 살펴보는 검사부터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및 말더듬과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검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성인의 경우 의사소통태도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로 P-FA-II의 의사소통태도 검사와 S-24(the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Andrews & Cutler, 1974)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말더듬 대상자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감정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말더듬으로 인한 회피, 투쟁, 예상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말더듬 지각 검사(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Woolf, 1967)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의 말더듬을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의 결과

로 지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행동통제소(Locus of control of behavior, Craig, Franklin, & Andrews, 1984)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의 말더듬에 대한 느낌 및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말더듬 자아효능감 검사(Self-efficacy for adult stutterers, Ornstein & Manning, 1985)와 상황별 자기반응 검사표(Stutters' self-rating of reactions to speech situation, Johnson, Darley, & Spriestersbach, 1952)가 있다. 이 외에도 말더듬 성인의 주관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주관적 말더듬 선별검사(Subjective screening of stuttering severity,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Riley, Riley, & Maguire, 2004)와 성인용 전반적 말더듬 경험 평가(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for ages 18 and above, 이하 OASES-A, Yaruss & Quesal, 2010)가 있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말더듬을 경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태도나 말더듬과 관련된 생각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부족했으며(Silverman, 1970),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학령기 말더듬 아동 역시 말더듬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최근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인 관점을 평가하는 검사도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관점을 평가하는 측면은 크게 의사소통태도와 말더듬 중증도, 전반적인 말더듬 경험 평가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의사소통태도를 살펴보는 검사도구들이 대부분이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 P-FA-II에 있는 초등학생용 의사소통태도 검사와 CAT(Communication attitude test, 이하 CAT, Brutten & Dunham, 1989), A-19(A-19 scale for children who stutter, Guitar & Grims, 1977)가 있다. P-FA-II의 의사소통태도검사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되게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의사소통태도가 유의미하게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우정, 2012; 서수진, 2014; 이순옥, 2010). CAT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연구결과들 역시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의사소통태도가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Brutten & Dunham(1989)은 CAT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De Nil &

Brutten(1991)역시 CAT-R을 사용하여 7-14세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말더듬 아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내어 말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다. 또한, CAT를 사용하여 6-13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Vanryckeghem & Brutten(1997)은 7세 아동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말더듬 아동이 유의미하게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영어권 외 국가에서도 CAT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하였는데, Bernardini et al.(2009)은 CAT-R을 사용하여 6-14세 이탈리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AT-R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1-6학년 일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Kawai et al.(2012) 역시 일본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CAT를 번역하여 사용한 연구들도 동일하게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가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진원·권도하, 2009; 장혜주, 2013; 차 현, 2015).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연구에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CAT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T는 Brutten(1985)에 의해 최초 35문항으로 개발되어 현재 32문항으로 개정된 CAT-R(De Nil & Brutten, 1991)과 아동용 행동평가검사(Behavior assessment battery: BAB, Brutten & Vanryckeghem, 2007)의 부분검사로 출판된 33문항의 CAT가 사용되고 있다. CAT-R의 경우 차 현(2015)이 한국적용을 위해 검사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의 적절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한 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측정 시 CAT-R(De Nil & Brutten, 1991)을 사용하고자 한다.

의사소통태도뿐 아니라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아동용 행동평가검사(BAB, Brutten & Vanryckeghem, 2007)에 포함된 말 상황 체크리스트(Speech Situation Checklist, 이하 SSC)와 행동 체크리스트(Behavior checklist: BCL)가 있다. 말 상황 체크리스트(SSC)는 55개의 발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Emotion reaction: ER)과 각 상황에서의 말 붕괴(Speech disruption: SD)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Brutten(1965)에 의해 최초 개발되었으며, 2007년에 BAB의 일부로 출판되었다. 검사도구 표준화 시,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들보다 정서적 반응과 말 붕괴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55개의 발화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말 붕괴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rutten & Vanryckeghem, 2007). 행동체크리스트(BCL)는 말더듬 아동이 자신의 말더듬 순간을 예측하거나 경험할 때 사용하는 회피행동 및 탈출행동인 신체 움직임, 호흡, 특정 말 행동과 같은 범주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체크리스트(BCL)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회피행동 및 탈출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utten & Vanryckeghem, 2007; Vanryckeghem & Herder, 2004).

이 외에도 7-12세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학령기 말더듬 아동용 전반적 말더듬 경험평가(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for school-aged children, 이하, OASES-S, Yaruss & Quesal, 2010)가 있다. OASES-S는 총 60문항으로 말더듬에 대한 일반적 정보, 말더듬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반응,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삶의 질과 같은 4개의 섹션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총 점수를 응답한 문항의 수로 나누어 영향력 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영향력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Lankman, Yaruss, & Franken(2015)은 OASES-S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 101명과 일반아동 51명을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에 비해 말더듬 아동의 OASES-S의 총점수와 4가지 섹션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OASES-S 총점수가 CAT 점수 및 스스로 평정한 중증도, 말에 대한 만족감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 및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 이외에도 등간척도 및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이하 VAS)를 사용하여 말더듬는 성인과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다. 등간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anning(2010)은 0에서 8점 등간 척도를 사용하여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중증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Lankman, Yaruss, & Franken(2015)은 매우 나쁨(0점), 매우 좋음(10점)으로 구성된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더듬 중증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Messenger et al.(2015)은 전혀 더듬지 않았다(1점),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9점)로 구성된 1-9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스스로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를 사용한 Ezrati-Vinacour & Levin(2004)은 양극단에 '나는 더듬지 않았다',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가 표시된 10cm의

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중증도를 클립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James, Brumfitt, & Cowell(2009)는 구어평가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심리, 정서적 반응을 0-10cm의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를 활용하였다. 등간척도의 경우 선택의 범위가 좁고, 극단값 선택을 주저하여 대체적으로 가운데로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현정 2007). 반면에,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는 눈금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한 측정이 가능하며, 등간척도에 비해 선택의 범위가 넓다(Wuyts, De Bodt, & Van de Heyning, 1999). 또한, 자료 제어 수치를 정량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측정치와의 비교 및 통계처리가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박언진, 2012; 채선옥,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스스로가 느끼는 중증도 측면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측정치들과의 비교를 위해 10cm의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를 사용하여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였다.

다.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인 말더듬 평가 간 상관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 결과와 주관적인 말더듬 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들은 외현적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 간에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김재옥·신문자, 2008; 김우정, 2012; 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이순옥, 2010; 전희숙·권도하, 2005; Manning & Beck, 2013; Mulcahy et al., 2008; Silverman & Zimmer, 1979; Ulliana & Ingham, 1984). 예를 들어, 김주연·이은주·황민아(2008)는 P-FA 구어평가 점수 및 부수행동 평가점수와 말더듬 지각검사(PSI)의 회피, 투쟁, 예기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재옥·신문자(2007)는 P-FA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선별검사(SSS-R) 중증도 간 낮은 일치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S-24와 외현적 말더듬 평가결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더듬은 음절의 비율 및 비유창성 빈도 등의 외현적 말더듬 평가결과와 S-24 점수 간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전희숙·권도하, 2005; Andrews & Cutler, 1974; Silverman & Zimmer, 1979; Ulliana & Ingham, 1984). OASES-A와 외현적 평가의 상관성을 분석한 Manning & Beck(2013)도 SSI 총 점수와 더듬은

음절의 비율이 OASES-A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말더듬 아동 역시, 외현적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P-FA 필수과제 총 점수와 P-FA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두 측정치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되었으며(김우정, 2012; 이순옥, 2010), Mulcahy et al.(2008) 역시 더듬은 음절의 비율과 낱말반복 및 부분낱말반복의 비율(Percentage of word and part word repetitions, %WPWR)과 OASES-T(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for teenagers, Yaruss & Quesal, 2010) 총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외현적으로 측정된 말더듬 평가결과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 결과 간에 상관이 낮거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해석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말의 유창성 수준이 장소나 상황, 평가과제 및 컨디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말더듬의 가변성(variability)때문이다(Manning, 2010). 두 번째는, 말더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심한 노력을 하거나 회피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환, 2005). 마지막으로, 말더듬으로 인해 겪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 및 핸디캡이 다르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인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전희정·스콧야루스, 2015). 따라서, 말더듬은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말더듬의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현적 말더듬 평가결과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 결과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말더듬과 불안

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내면적 특성

의사소통은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류하는 것으로 말과 언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령기가 되면 공적인 상황에서 말 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배선영, 2000), 또래관계 형성에 언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들은 또래간의 상호 감정 교류나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김민정, 2004). 이처럼 또래, 교사 등의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의미 있는 형태로 타인에게 지각되어야 하나 말더듬 아동들은 핵심행동, 부수행동과 같은 외현적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문제 행동, 불안감, 말에 대한 부담감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말더듬 핵심행동 및 부수행동으로 인해 또래에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Benecken & Spindler, 2004; Blood et al., 2011; Davis, Howell, & Cooke, 2002; Hugh-Hones & Smith, 1999) 이 역시 아동의 내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내면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들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내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지며, 말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결과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김우정, 2012; 박진원·권도하, 2009; 서수진, 2014; 이순옥, 2010; 차 현, 2015; Brutten & Dunham, 1989; De Nil & Brutten, 1991; Vanryckeghem & Brutten, 1996).

또한, 학령기 말더듬 아동들은 의사소통 실패의 반복적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의사소통태도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서수진, 2014; Gordon et al., 2003), 높은 불안수준, 수치감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내면적 특성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장애 극복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조원성, 1996). 또한, 말더듬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 수줍음, 예민함의 특성을 보이며(Bloch & Goodstein, 1971), 학교생활에서 낮은 자신감 및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말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우정, 2012).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더듬 아동 평가 시 핵심행동뿐 아니라 자기보고를 통한 의사소통태도 및 내면적 특성을 평가하여 치료 시 반영하고 있다.

나.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학령기 말더듬 아동들이 말더듬으로 인해 갖게 되는 내면적 특성 중 하나가 불안(Anxiety)이다. 불안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협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로(Freud, 1966), 모든 성별 및 연령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반응이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며, 적당량의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반응을 유도하도록 자극하지만(강민정, 2007) 불안한 감정이 개인에 맞게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불안 정도가 지나치면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영옥, 2009). 불안은 크게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나뉘는데, 상태불안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걱정, 또는 두려움 등이 야기되는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불안을 의미하며, 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특성불안은 불안을 일으키는 경향에 대해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어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Spielberger, 1983). 상태불안이 지속되면, 불안이 개인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어 특성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고영옥, 2009).

아동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 가정 및 이웃에만 국한되어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또래관계, 외모, 시험, 학업, 선생님과 접촉 및 타인의 인정 등에 민감해지게 되면서(강민정, 2007) 자연스럽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만 10세에 이르면 낮아지고 비교적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윤란·오경자, 2003). 하지만,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이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아동과 달리 말더듬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하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빈번하게 느낄 수 있다

(Mckinnon, Hess, & Landry, 1986). 또한, 발표하기, 질문하기, 책 읽기 등의 다양한 구어 상황에서 말더듬을 예측하거나 말을 더듬게 되면서, 상황에 따른 불안감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말더듬 성인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말더듬 성인의 연구결과(고영옥, 2009; 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Craig, 1990)와 달리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마다 다양한 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이하 STAI-C, Spielberger, 1973)와 구어 의사소통 시 상태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말 상황 체크리스트: 정서적 반응(Speech Situation Checklist for Children-Emotional Reaction: SSC-ER, Brutton & Vanryckeghem, 2007)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TAI-C의 경우 개인의 일반적인 불안을 살펴보는 특성불안과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상태불안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나 상태불안 측정 시, 특정 상황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구어 상황에서의 평가가 어렵다. 반면에 SSC-ER은 학령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55개의 다양한 말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어의사소통 시 상태불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ergheese, 2004).

먼저, STAI-C를 사용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정도를 비교한 연구들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또는 상태불안 수준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는 결과와(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 Davis, Shisca, & Howell, 2007; Mulcahy et al., 2008)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수준이 일반 아동과 비슷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raig & Hancock, 1996; Hancock et al., 1998). SSC-ER을 사용하여 상태불안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상태불안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되었다(Brutton, 1982; Hanson, Gronhovd, & Rice, 1981; Vergheese, 2004; Trotter, 198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수준이 말더듬 성인과 달리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성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척도를 사용하여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 역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Andrews & Harris, 1964; Blood et al., 2007; Pukacova, 1974).

말더듬 아동의 불안 수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은 말더듬 아동이 말

더듬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 말더듬이 만성화 되어 부정적인 상황에 장기적으로 직면해왔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상태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불안이 특성불안을 형성하였을 수도 있다. 반면에, 말더듬 아동은 말더듬 성인에 비해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연구들마다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수준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실험설계 측면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안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정도를 모두 측정 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측정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STAI-C와 구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태불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SC-ER을 사용하여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말더듬으로 인해 불안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불안으로 인해 말더듬 행동이 나타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많은 연구들이 불안과 말더듬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Bloodstein, 1995). 특히,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체적으로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Ezrati-Vinacour & Levin, 2004; Mulcahy et al., 2008). 예를 들어, 학령기 말더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우정·이수복·심현섭(2014)는 P-FA-II를 통해 산정한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특성불안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Blood et al.(2007)은 SSI-3를 통해 산정한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특성불안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외현적 말더듬 측정치인 %SS, %WPWR과 불안을 살펴본 Craig & Hancock(1996)과 Mulcahy et al.(2008) 역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특성불안, 상태불안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없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현적으로 측정 한 말더듬 중증도가 ‘심함’이더라도 불안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가

‘약함’이더라도 아동의 불안수준은 높을 수 있으므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뿐 아니라 주관적 말더듬 평가를 통해 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말더듬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주관적으로 평가한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으며, 이 둘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자기보고에 의한 말더듬 중증도를 모두 측정하여 불안과의 상관을 분석한 Ezrati-Vinacour & Levin(2004)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김주연·이은주·황민아(2008) 역시 P-FA의 말더듬 중증도가 아니라 말더듬 성인 스스로 느끼는 말더듬 지각 정도와 불안 간에 높은 상관을 보고하였다. 또한 OASES를 통해 산정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간의 상관성을 살핀 연구들에서도 불안 수준이 말을 더듬은 음절의 비율(%SS) 및 SSI 말더듬 중증도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OASES와는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ng & Beck, 2013; Mulcahy et al., 2008).

종합해보면,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 결과보다는 말더듬 아동 스스로 생각하는 말더듬에 대한 평가가 아동의 정서적 측면인 불안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말더듬 성인처럼 말더듬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말더듬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않지만 심리·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다. 따라서, 말더듬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치료기술 사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말더듬 아동의 불안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박진원·권도하, 2009). 따라서, 말더듬과 불안의 보다 심도 있는 관계 파악을 위해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뿐 아니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총 31명으로 학령기 말더듬 아동 15명(남 9명, 여 6명)과 일반 아동 16명(남 9명, 여 7명)이었다. 말더듬 아동의 평균 생활연령은 8.91세(± 1.31), 일반 아동의 평균연령은 9.55세(± 1.03)였으며, 생활연령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생활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말더듬 아동 15명 중 12명이 저학년(1-3학년)에 속하였고, 일반아동의 경우 16명 중 9명이 저학년에 속하였다.

가. 말더듬 아동

말더듬 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으로, 2) 부모나 주 양육자 또는 교사가 말더듬으로 보고하였으며, 3)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 P-FA-II』(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말더듬 아동으로 진단하였고, 4)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이하 REVT』(김영태 외, 2009) 결과 언어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며, 5) 말더듬 외 말-언어장애가 없고 읽기 이해에 문제가 없었고, 6) 부모나 주 양육자의 보고에 의해 감각장애, 신체장애, 정서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의 기타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이었다.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P-FA-II,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 중증도는 약함 10명, 중간 5명이었다. 대상자 정보는 <표-1>과 같다.

나. 일반 아동

말더듬 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으로, 2) REVT

결과 언어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며, 3) 말-언어장애가 없고 읽기 이해에 문제가 없었고, 4) 부모나 주 양육자의 보고에 의해 감각장애, 신체장애, 정서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의 기타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이었다. 대상자 정보 역시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배경정보

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			
	성별	연령	학년	말더듬 중증도 (P-FA-II)		성별	연령	학년
S-1	남	10;8	초5	약함(1-10%ile)	N-1	남	11;9	초6
S-2	남	8;10	초3	중간(61-70%ile)	N-2	여	9;5	초4
S-3	여	8;6	초3	약함(1-10%ile)	N-3	남	10;4	초4
S-4	여	12;6	초6	약함(11-20%ile)	N-4	여	10;6	초4
S-5	여	7;7	초1	중간(41-50%ile)	N-5	여	9;6	초3
S-6	여	7;2	초1	중간(61-70%ile)	N-6	여	9;7	초3
S-7	여	8;9	초3	중간(71-80%ile)	N-7	여	9;7	초3
S-8	여	9;7	초4	약함(1-10%ile)	N-8	남	9;9	초4
S-9	남	9;1	초3	약함(1-10%ile)	N-9	남	9;0	초3
S-10	남	8;9	초3	약함(1-10%ile)	N-10	남	8;9	초3
S-11	남	8;1	초2	약함(1-10%ile)	N-11	남	8;6	초2
S-12	남	8;6	초2	중간(71-80%ile)	N-12	여	8;7	초2
S-13	남	8;0	초2	약함(1-10%ile)	N-13	남	8;2	초2
S-14	남	9;6	초3	약함(1-10%ile)	N-14	남	7;11	초2
S-15	남	8;2	초2	중간(41-50%ile)	N-15	남	10;1	초4
					N-16	여	10;6	초4

2. 검사도구

가.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라다이스 유창성검사-II』(P-FA-II,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사용하였다. P-FA-II는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과제가 다르며, 정상적 비유창성(Normal disfluency: ND)과 비정상

적 비유창성(Abnormal disfluency: AD)을 모두 분석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초등학생 저학년용 및 고학년용 필수과제(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 그림)를 사용하여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였다. P-FA-II 재표준화 시, 필수과제에서 학령기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정상적 비유창성 비율(ND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정상적 비유창성 포함 시 말더듬 중증도가 과대평가 될 수 있다는 점(하지완·이은주, 2009)을 고려하여 비정상적 비유창성(AD)만을 분석하여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였다.

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Ezrati-Vinacour & Levin(2004)이 제시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zrati-Vinacour & Levin(2004)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 시 20cm 자의 양극단에 0-‘나는 심하게 더듬었다’ 20-‘나는 심하게 더듬지 않았다’를 제시해두고 말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더듬 중증도를 클립(paper clip)을 사용하여 표시한 후 이를 즉각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민감하고 정확한 중증도 측정을 위해 10cm의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여 수직선으로 자신의 말더듬 중증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추후 3회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VAS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심리측정 척도(psychometric scale)로, 눈금이 표시되지 않은 연속선상에서 양 옆의 극단점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선의 한 부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게 한 후,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10-20cm의 길이가 사용되며, 통증의 정도, 우울, 불안신경증과 같은 심리현상이나 삶의 질 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된 방식으로 검사 방식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되었다(박연진, 2012).

또한, 상황 및 발화과제마다 외현적 말더듬 빈도 및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variability)과 관련하여 아동 스스로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 역시 상황 및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1)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평소 말더듬 아동 스스로가 느끼는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눈금이 표시되지 않은 10cm의 VAS 양극단에 0-‘나는 전혀 더듬지 않는다’, 10-‘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는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부록-1>. 평소 생각하는 말더듬 중증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시작점에서 표시점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길이가 길수록 평소 느끼는 말더듬 중증도를 심함으로 분석하였다.

(2)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P-FA-II의 세 가지 필수과제인 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 과제 실시 직후 각각 측정하였으며, 눈금이 표시되지 않은 10cm의 VAS 양극단에 0-‘나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10-‘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와 같이 과거형으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부록-2>. 세 가지 과제를 각각 실시한 직후 자신이 느낀 말더듬 중증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마찬가지로 추후 시작점에서 표시점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길이가 길수록 각 과제에서 지각한 말더듬 중증도를 심함으로 분석하였다.

다. 특성불안

본 연구에서 아동의 특성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3)의 STAI-C(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를 조수철·최진숙(198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아동용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STAI-C는 자기 평정식 척도로, 상태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불안척도(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AI-C)와 특성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불안척도(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TAI-C, 이하 TAI-C)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검사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이며, 국내 아동을 대

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조수철·최진숙, 1989). 이 중 아동이 특징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불안 수준을 보고자 특성불안척도(TAI-C)를 사용하였다. TAI-C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3점 척도(1-그런 일이 없다, 2-때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로 평정할 수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2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수철·최진숙(1989)은 초등학교 522명의 TAI-C 평균점수가 31.96점(SD=7.13)이라고 보고하였다. TAI-C는 <부록-3>에 제시하였다.

라. 상태불안

구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rutton & Vanryckeghem(2007)의 아동용 말 상황 체크리스트(Speech Situation Checklist: SSC)를 사용하였다. SSC는 학령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55개의 말 상황(예: 전화대화 상황, 발표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Emotion Reaction: ER) 및 말 붕괴(Speech Disruption: SD)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구어 의사소통 시 아동의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ER)’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반응(ER)’은 각 상황에서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 정도를 5점 척도(두렵지 않음, 조금 두려움, 조금 더 두려움, 많이 두려움, 매우 많이 두려움)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구어 상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아동용 상태불안척도(SAI-C, 조수철·최진숙, 1989)와 비교하였을 때, SSC-ER은 55개의 다양한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상태불안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SSC-ER을 통해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을 측정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Brutton, 1982; Hanson, Gronhovd, & Rice, 1981; Verghese, 2004; Trotter, 1983).

SSC-ER의 총 점수 범위는 55점-275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말하는 상황에서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rutton & Vanryckeghem(2007)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평균점수는 89.04점(SD=24.75), 일반 아동의 평균점수는 74.15점(SD=18.08)라고 보고하였다.

이 검사도구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연구 대상에게 사용하기 위해 번역-역번역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검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의 적절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유창성장애

를 전공한 언어병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논의한 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다음 한국어로 번역한 검사지를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의뢰하여 영어로 역번역 한 후, 처음 한국어 번역 시 번역의 적절성을 확인한 유창성장애 전문가가 역번역 검사지와 원본 검사지를 비교하여 각 문항의 표현이나 의미적 측면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 의사소통태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e Nil & Brutten(1991)의 CAT-R을 한국어로 번역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차 현, 2015)(<부록-4> 참조). CAT-R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방식의 지필검사로, 주어진 문항에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의사소통태도 점수 산출 시 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답으로 선택한 경우 1점씩 부여하여 각 문항을 채점한 후 총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지며 의사소통에 부담이 많음을 의미한다. De Nil & Brutten(1991)은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평균은 16.7점(SD=7.3)이었으며, 일반 아동 평균 8.71점(SD=5.5)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차 현(2015)은 말더듬 아동 평균 13.50점(SD=8.25), 일반 아동 평균 7.50점(SD=5.00)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절차

가. 자료수집

연구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는 보호자 및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아동의 감각장애, 신체장애, 정서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의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한 후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아동과 1:1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언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을 위해 P-FA-II의 초등학생용 필수과제를 실시하였다. 외현적 중증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을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디지털 캠코더(SONY HDR-AS30V)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P-FA-II 검사시작 전, 첫 절차로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을 위해 자신의 평소 말더듬 중증도를 10cm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0에서부터 표시된 선까지 자로 재어서 중증도 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 표시를 하거나 ○ 또는 X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지 않고, 수직선(|)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평정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FA-II의 필수과제(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에 해당되는 각 과제를 실시한 직후마다 10cm의 VAS 통해 자신의 말더듬 중증도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여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였다. 즉, 각 P-FA-II 과제가 끝날 때마다 총 3회에 걸쳐 말더듬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으며,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마찬가지로 수직선(|)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언어검사 및 외현적,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평가가 끝난 후 10-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 후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TAI-C 및 CAT-R, SSC-ER을 순서에 상관없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나눠주기 전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시범을 보여준 후 질문을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답에 체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아동이 설문지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 연구자가 설명해주었다.

일반아동의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전 언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TAI-C, SSC-ER을 순서에 상관없이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 방법은 말더듬 아동과 동일하였다.

나. 자료분석

(1)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P-FA-II 필수과제가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통해 아동의 발화를 전사하여 분석한 뒤,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빈도(AD빈도)를 모두 합하고, 이를 목표음절수로 나누어 100을 곱해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비율(AD비율)을 산출하였다. 비정상적 비유창

성 비율(AD비율)이 높을수록 말더듬 중증도가 심함으로 분석되며, 본 연구에서는 필수과제의 총 비정상적 비유창성 비율(총 AD비율)을 사용하여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였다.

(2)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아동이 10cm 선 위에 표시한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의 평정치는 0에서부터 표시한 점까지의 거리를 자로 재어 구하였다. 각 자마다 cm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자를 사용하였다. 즉, 거리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 VAS에 아동이 표시한 부분까지 각각의 자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한 뒤 거리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주관적 중증도를 산출하였다. 길이가 길수록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를 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는 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 3가지 필수과제 수행 직후 각각에 표시한 점까지의 거리를 자로 재어 구하였다.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과 동일하게 각 자마다 cm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자를 사용하여 각 과제의 VAS에 아동이 표시한 부분까지 총 3회 반복 측정한 뒤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 과제에 따른 중증도 수치를 얻었다. 그 후 각 과제에서 얻은 3가지 측정치를 합하여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산출하였다. 길이가 길수록 말더듬 중증도를 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특성불안

TAI-C의 특성불안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이 답한 항목별로 해당점수를 부여한 후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상태불안

SSC-ER의 구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이 답한 항목별로 해당점수를 부여한 후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태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의사소통태도

CAT-R의 의사소통태도 점수 산출 시 각 문항의 답과 일치할 경우, 즉, 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답으로 선택한 경우 1점씩 부여하여 각 문항을 채점한 후 총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태도가 부정적이며 말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신뢰도

총 AD비율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의 평가자 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를 구하기 위해 말더듬 아동의 20%인 3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첫 분석 후 최소 3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P-FA-II 총 AD비율은 .98,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1,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1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측정을 위해 말더듬 아동의 20%인 3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언어재활 임상경력이 있고 말더듬 평가 및 분석 경험이 있는 제 2평가자가 P-FA-II 발화자료와 10cm VAS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총 AD비율 .96,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99,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99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5. 자료의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시 대상자들의 생활연령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외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Davis, Howell, & Cooke, 2002; Messenger et al. 2015) 생활연령과 종속변수(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점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연령과 어떠한 종속변수들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p>.05$). 따라서, 집단 간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결과 비교와 말더듬 아동 집단 내 변인들 간 상관분석 시 연령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지 않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특성불안 점수 및 상태불안 점수 비교를 위해 독립변수를 집단(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 종속변수를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점수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 -test)을 각각 실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불안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을 각각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불안수준 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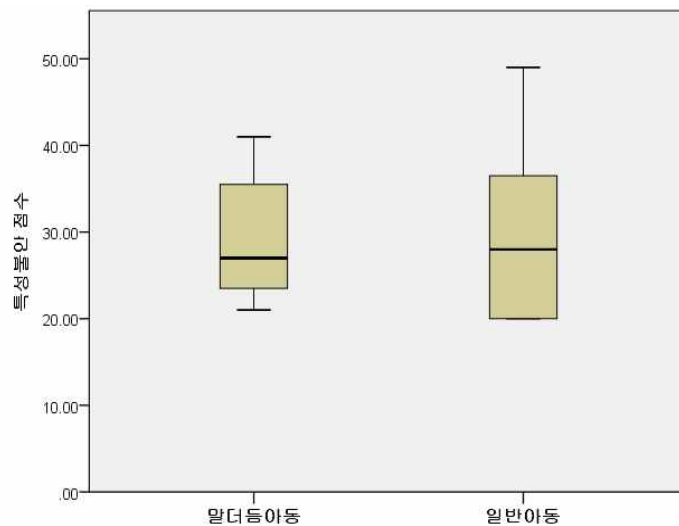
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특성불안 비교 결과

집단별 특성불안 점수의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평균점수가 29.20점(SD=7.11)이었으며, 일반 아동의 평균 점수는 29.94점(SD=9.86)으로 일반 아동 집단 점수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였지만 두 집단의 평균점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2>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 결과

	M	SD	<i>t</i>	<i>df</i>	<i>p</i>
말더듬 아동(n=15)	29.20	7.11	-.237	29	.814
일반 아동(n=16)	29.94	9.86			

$p<.05$



<그림-1>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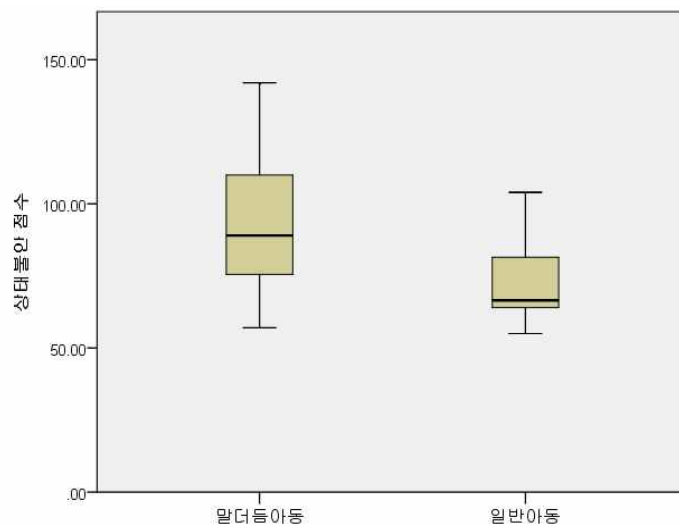
나.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상태불안 비교 결과

두 아동 집단의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 결과는 <표-3>과 같다. 말더듬 아동 집단의 평균점수는 93.80점(SD=25.07)이었으며, 일반 아동 집단의 평균점수는 73.81점(SD=17.10)으로 말더듬 아동의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변동성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말더듬 아동 집단의 구어 의사소통 시 상태불안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_{(29)}=2.608, p<.05$).

<표-3>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상태불안 점수의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M	SD	t	df	p
말더듬 아동(n=15)	93.80	25.07	2.608	29	.014*
일반 아동(n=16)	73.81	17.10			

* $p<.05$



<그림-2> 아동 집단 간 상태불안 점수 분포 비교

2.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분석 결과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인 총 AD비율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총 AD비율은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AD비율과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내에서도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4> 총 AD비율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분석 결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총 AD 비율)	.390	-.514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		-.214

$p < .05$

3.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가.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인 총 AD비율과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다. 총 AD비율은 특성불안 및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총 AD비율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5> 총 AD비율과 특성불안,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특성불안	상태불안	의사소통태도
총 AD비율	.008	.241	.490

$p < .05$

나.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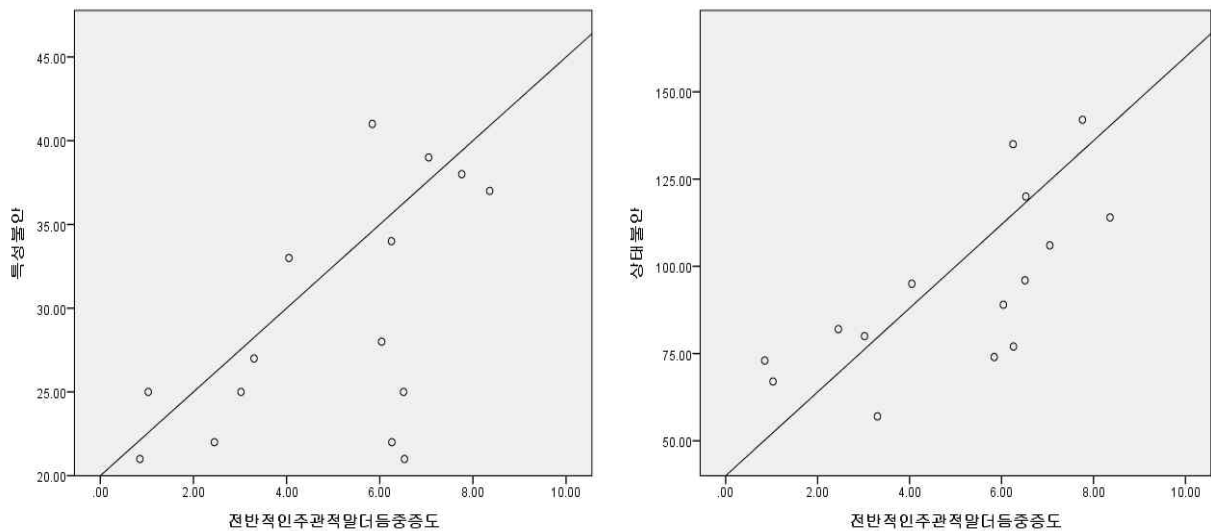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의사소통태도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표-6>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특성불안	상태불안	의사소통태도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567*	.703**	.260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042	-.212	-.536*

* $p < .05$, ** $p < .01$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불안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점수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 = .567, p < .05$),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와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 = .703, p < .01$). 반면,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및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태도의 경우,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36, p < .05$).



<그림-3>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간 산포도

다. 말더듬 아동의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7> 참조) 불안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내에서도 특성불안과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분석 결과

	상태불안	의사소통태도
특성불안	.432	.117
상태불안		.399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평가, 불안 및 의사소통 태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과 말과 관련된 상태 불안 정도를 일반 아동과 비교하고,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성,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1.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불안 정도를 비교한 결과, 특성불안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말더듬 아동의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인 총 AD비율과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AD비율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및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내에서도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말더듬 중증도(외현적, 주관적)와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AD비율은 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는 특성불안 뿐만 아니라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점수와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불안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특성불안 및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불안과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간 상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논의

가.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특성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특성불안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보다 불안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raig & Hancock, 1996; Hancock et al., 1998). 또한,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특성불안 평균점수는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TAI-C를 국내 초등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조수철·최진숙(1989)이 보고했던 특성불안 표준화 점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1.96점, SD=7.13). 아동 개개인의 점수를 살펴보면, 말더듬 아동 4명과 일반 아동 6명이 표준화 점수보다 특성불안 점수가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불안수준은 일반 아동의 불안수준과 다르지 않으며, 정상범주의 불안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말더듬 아동이 민감하고 불안수준이 높거나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부정적인 고정관념(Fowlie & Cooper, 1978; Wakaba, 1998)이 잘못되었음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특성불안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역시 존재한다(김우정, 2012; Blood et al., 2007; Davis, Shisca, & Howell, 2007; Mulcahy et al., 2008).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실험설계 방식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인 중증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평균연령이 9.25세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 참여대상자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아동의 생활연령과 불안수준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학년이라면 말더듬으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와 부정적인 경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외현적인 말더듬 중증도가 심함인 경우 역시 약함인 경우보다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 아동의 높은 상태불안 수준이 유지되면서 특성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Mulcahy et al.(2008)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역시 다양하였다. 말더듬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역시 말더듬 성인의 특성불안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Craig, 1990; Craig et al., 2003; Ezrati-Vinacour & Levin,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학령기 말더듬 아동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말더듬 아동 집단이나 말더듬 중증도 집단 간 특성불안 비교와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SC-ER을 사용하여 측정한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의 경우, 말더듬 아동 집단의 구어 의사소통 시 느끼는 상태불안 점수가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각 집단의 평균점수는 Brutton & Vanryckeghem(2007)이 아동 집단 별로 제시 하였던 SSC-ER 평균점수 범위(말더듬 아동 89.04±24.27점, 일반 아동 74.15±18.08 점)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상태불안 점수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rutton, 1982; Hanson, Gronhoyd, & Rice, 1981; Verghese, 2004; Trotter, 198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다양한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겪은 반복적 실패 경험 때문일 수 있다. 말더듬 아동도 말더듬이 지속되면서 발표하기, 소리내어 읽기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말더듬 행동으로 인해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말더듬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말더듬으로 인해 의사소통 실패가 계속되면 말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좌절감뿐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tner, 1997). 둘째, 타인의 부정적 반응 및 비판적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그에 대해 말더듬 아동 스스로가 보이는 인지적인 측면 때문일 것이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Messenger et al., 2015). 학령기는 또래들과 선생님의 인간관계가 확장될 뿐 아니라(안경숙, 2001) 인간관계의 유지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배선영, 2000), 구어 의사소통 실패로 인해 또래 및 선생님 등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실제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말더듬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ladston, Parker, & Malhi, 2006). 즉, 구어 상황에서 말더듬 행동으로 인해 경험한 청자의 부정적 반응과 비판적인 태도가 누적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미리 염려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면서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이 높아졌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유형에 따른 말더듬 아동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정도는 일반 아동과 다르지 않았으나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정도가 일반 아동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불안의 근본적인 차이로 설명해볼 수 있다. 특성불안이 개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 성향(Spielberger, 1983)인 반면 상태불안은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시 상태불안을 검사하기 위해 전화대화 상황, 발표하는 상황, 어른과 말하는 상황, 점원에게 말하는 상황 등 55개의 다양한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심박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호흡을 급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Weber & Smith, 1990; Zimmermann, Smith & Hanley, 1981) 이는 유창한 말을 산출하기 위한 말 운동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Beck & Emery, 1985). 이에 말더듬 성인의 경우 높은 불안 수준이 유창성 획득을 위한 치료기법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료 시 불안 수준을 낮춰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Craig & Hancock, 1996).

말더듬 아동이 성인처럼 면접, 취업, 직장생활 등의 사회생활에서 말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장기적으로 직면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불안 수준이 일반 아동보다 높았던 이번 결과는 아동 평가 시에 여러 구어 상황과 관련된 정서적 불안감을 살펴야 하며, 치료 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 상태불안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 특성불안을 형성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고영옥, 2009), 말더듬 아동의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상태불안이 치료 시 습득한 유창성 기술 사용을 방해할 수 있고, 유창성이 획득된 후에도 일상생활로의 전이 및 일반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관련

본 연구에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결과는 말더듬 성인의 외현적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된 선행연구(김재옥·신문자, 2008; 김주연·

이은주·황민아, 2008; 전희숙·권도하, 2005; Manning & Beck, 2013; Silverman & Zimmer, 1979; Ulliana & Ingham, 1984)와 맥락을 같이한다.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하지 않고 주로 말에 대한 태도와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헌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Mulcahy et al.(2008)은 말더듬 아동 및 청소년의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OASES-T 총 점수와 말더듬 음절 비율(%SS)과 낱말반복 및 부분낱말반복의 비율(%WPWR)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핵심행동의 빈도와 말더듬에 대한 주관적 판단 사이에 관련성이 적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인 총 AD비율이 낮더라도 말더듬 아동 스스로는 말더듬 중증도를 10cm VAS에 중간 이상인 6-7로 평정하였으며, 총 AD비율이 높게 평가된 아동이 스스로는 10cm VAS에 3미만으로 평정하거나 8이상으로 평정하는 등 대체적으로 중증도가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현적으로 측정된 말더듬 중증도와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이 없었던 것은 말의 유창성 수준이 장소나 상황, 평가과제 및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말더듬의 가변성(variability)과 연결시켜 해석해볼 수 있다(Manning, 2010). 또한,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가 아동 스스로가 평소에 지각하는 말더듬 정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말더듬 아동 개개인이 말더듬으로 인해 겪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관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전희정·스콧야루스, 2015). 마지막으로, 외현적인 말더듬 평가 시 아동이 유창하게 발화를 산출했을 수 있으나 아동 스스로는 말더듬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책을 사용하거나 대치하기, 에두르기, 대용어 사용과 같은 회피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이승환, 2005). 그러나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이 대부분 저학년이며, 구조화된 구어과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회피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간 상관이 없었던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변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 시 사용한 읽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그림 설명하기 세 가지 구어과제가 평소 아동의 전반적인 유창성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했을 수 있으며, 구어과제의 특성과 연구 참여 당시 아동의 컨디션 및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

을 수 있다. 또한, 말더듬 아동들은 자신의 말더듬 행동, 빈도, 양상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 말더듬 성인들에게도 자신의 말더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히 변별해내는 것은 어려운 과업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최다혜, 2003), 말더듬 아동들이 과제 직후 자신의 말더듬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 역시 연구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내에서도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와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 간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말더듬의 가변성과 구어과제 순간에 나타난 자신의 말더듬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평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로 해석해볼 수 있다.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사이에 상관이 없었던 본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말더듬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말더듬 아동 평가 시에도 외현적 말더듬 평가와 주관적 말더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 관련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반면 주관적인 전반적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특성불안, 상태불안)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인 말더듬이 심하다고 해서 불안수준이 항상 높은 것이 아니며(김우정, 2012; Ezrati-Vinacour & Levin, 2004), 말더듬 아동 및 청소년의 %SS, %WPWR과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raig & Hancock, 1996; Mulcahy et al.,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의 경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 방식은 상이하였으나 일관되게 주관적으로 평가한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Ezrati-Vinacour & Levin, 2004; Manning & Beck, 2013). 이는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가 대상자 자신이 평소 지각하고 있는 말더듬 중증

도를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서적 감정인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안 중에서도 특성불안보다는 구어 의사소통 시 상태불안과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간 상관의 정도가 더 높았는데, 상태불안은 말과 관련된 개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은 구어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자 수, 친숙도, 의사소통 상황의 종류, 경험 빈도, 선호도 등 개인적인 특성과 관점이 반영된 불안수준이므로 스스로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와 더 강한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성불안,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수준이 평소 아동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말더듬 중증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말더듬 중증도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제수행 직후 아동이 판단하였던 주관적 중증도는 말더듬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말더듬의 가변성 특성과 더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결과는 과제에 따른 주관적 중증도가 전반적인 주관적 중증도와 상관이 없었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현적인 핵심행동의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라면 불안감이 높을 수 있으며, 핵심행동의 빈도가 높더라도 스스로 말더듬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고 지각한다면 불안감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말더듬 아동의 불안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 평소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불안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말더듬 아동의 외현적,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 태도 간 관련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간 관련성은 지금까지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선행연구 중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이 없으며 두 변인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던 반면(김우정, 2012; 이순옥, 2010;

Andrews & Cuter, 1974; Silverman & Zimmer, 1979; Vanryckeghem & Brutton, 1996)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던 연구들도(박진원·권도하, 2009; Brutton & Janssen, 1981; Helps & Dalton, 1979; Vanryckeghem, 2001)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는 실험 참여자의 수, 참여자들의 말더듬 중증도 분포, 말더듬으로 인한 개인적 경험 및 특성들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방법이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을 보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Vanryckeghem(2001)은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 지속시간, 신체적 부수행동이 반영된 SSI 점수와 CAT 간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고하였으나 Vanryckeghem & Brutton(1996)은 말더듬 아동의 핵심행동만을 반영한 %SS와 CAT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을 위해 총 AD비율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에서 사용한 말더듬 중증도 분석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의 경우,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검사와 의사소통태도 간의 상관을 살펴본 Lankman, Yaruss, & Franken(2015)은 말더듬 아동의 OASES-S 총 점수 및 섹션별 점수와 CAT 점수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ICF의 정의를 따라 말더듬 핵심행동뿐 아니라 활동/참여의 제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주관적 관점을 광범위하게 측정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VAS를 사용하여 말더듬 중증도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의사소통 태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부적상관 결과는 과제에 따른 말더듬 중증도가 평소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닌 세 가지의 구어과제 실시 후 측정된 중증도인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즉, 평소 의사소통 태도가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실험 당시 컨디션이나 해당 과제에서 말더듬이 심하였거나 심하게 느꼈을 수 있고, 반대로 의사소통태도가 부정적이고 말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나 실험 당시 말더듬이 약하였거나 스스로 약하게 지각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말더듬 중증도와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모두 의사소통태도

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없었던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특성을 보다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평가와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 말더듬 아동의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 관련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간에 각각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특성불안 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김우정, 2012; Miller & Waston, 1992).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검사도구의 특성, 대상자 등의 실험설계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태도 검사의 경우 측정방식이 ‘예’ 또는 ‘아니요’로 이분법적인 반면 특성불안은 3점 척도, 상태불안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다. 또한, 상태불안이 55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구어 의사소통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의사소통태도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상황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성불안 척도의 경우 의사소통 상황이나 말과 관련된 검사 문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특성인 불안감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성불안은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불안 수준이며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되므로(Ezrati-Vinacour & Levin, 2004)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행동이 특성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말과 관련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간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것 역시 특성불안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말에 대한 불안 정도와 아동의 고유한 불안수준은 관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성불안의 경우, 상태불안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 특성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말더듬 시작 이후 지속시간이 성인에 비하여 짧은 학령기 아동의 경우 아직 상태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아 이러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학령기 말더듬 아동은 성인에 비해 말에 대한 태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성인에 비해 학령기 말더듬 아동은 자아정체성, 자기존중감 등의 자아개념이 성인에 비

해 확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아직 의사소통태도로는 확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말과 관련된 불안 수준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동 스스로가 지각하는 말더듬 중증도와 불안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평가 및 중재 시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 평가와 더불어 말과 관련된 불안 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말더듬 아동 개인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말과 관련된 상황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둔감화가 말더듬 치료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초등학교 1-6학년으로 광범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종속변수(특성불안, 상태불안, 의사소통태도)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없었으나, 연령은 잠재적인 가외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이나 연령에 따른 말더듬 아동의 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측정 시 대상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10cm의 VAS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말더듬에 대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을 수 있으므로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도구와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불안 특성 및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을 살필 때,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말더듬 아동의 치료경험 유무, 치료기간 및 말더듬 지속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 경험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2007). 색채명상이 정서·행동장애아동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옥 · 신문자(2007). 주관적 말더듬 선별검사의 국내적용 타당도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2(2), 465-486.
- 고영옥(2009). 말더듬 심도에 따른 불안 및 태도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 홍경훈 · 김경희 · 장혜성 · 이주연(2009).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우정(2012).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정 · 이수복 · 심현섭(2014).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특수교육』, 13(2), 147-166.
- 김주연 · 이은주 · 황민아(2008).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중증도와 말더듬 지각 정도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677-690.
- 김현정(2007). 중증 위암환자의 효용가중치 측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언진(2012). 근골격계 환자의 검진에 있어 질문방식에 따른 시각적상사척도의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원 · 권도하(2009).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심리 정서적 의사소통태도에 관한 연구. 『정서 · 행동장애연구』, 25(2), 39-56.
- 배선영(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 전략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진(2014). 학령기 조음·음운장애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내면적 특성.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2010).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Ⅱ』.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 지재단.
- 안경숙(2001). 초등학생의 친한 친구 사귀기 과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윤란 · 오경자(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이순옥(2010). 학년에 따른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은지 · 신명선(2013).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문장구성능력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8(2), 111-124.
- 이지숙 · 심현섭 · 이수복(2013). 3-5세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특성. 『특수교육』, 12(3), 5-22.
- 장혜주(2013). 의사소통 중심 스피치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과 의사소통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숙 · 권도하(2005). 말더듬 성인이 의도적인 느린 구어에서 나타나는 구어 속도의 변화. 『재활과학연구』, 23(2), 79-88.
- 전희정 · 스콧야루스(2015). 성인용 전반적 말더듬 경험 평가(OASES™)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타당도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4(1), 145-155.
- 전희정(201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P-FA-II)와 말더듬 중증도 검사(SSI-4)를 사용한 말더듬인의 말더듬 중증도 비교 및 검사 요인들 간 상관분석. 『언어치료연구』, 23(2), 109-122.
- 제선옥(2009). 응급실을 내원한 소아청소년에서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용한 통증 정도 측정의 유용성.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 최진숙(1989). 한국형 소아의 상태 · 특성 불안 척도의 개발. 『서울의대 정신의학』, 14(3), 150-157.
- 조원성(1996).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 현(2015).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과 의사소통태도 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다혜(2003).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정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연구. 이화여자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완 · 이은주(2009).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에 대한 언어치료전문가들의 견해. 『언어청각장애연구』, 14(3), 363-379.
- 한 진(2010). 놀이중심 자기표현 집단 상담이 아동의 발표불안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brose, N. & Yairi, E.(1999). Normative disfluency data for early childhood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rch*, 42, 895-909.
- Andrews, G. & Cutler, J.(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Hearing and Disorders*, 39, 312-319.
- Andrews, G. & Harris, M.(1964). The syndrome of stuttering(Clinics on Developmental Medicine No. 17). London: Spastics society Medical Education and Information Unit, in association with W. Heinemann Medical Book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approach. *Basic, New York*, b58.
- Benecken, J. & Spindler, C.(2004). Zur psychosozialen situation stotternder schulkinder in allgemeinschulen. *Die Sprachheilarbeit*, 49(2), 61 - 70.
- Bernardini, S., Vanryckeghem, M., Brutten, G. J., Cocco, L., & Zmarich, C. (2009). Communication attitude of Italian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2(2), 155-161.
- Bloch, E. L. & Goodstein, L. D.(1971). Functional speech disorders and personality: A decade of research.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6, 295-314.
- Blood, G. W., Blood, I. M., Maloney, K., Meyer, C., & Qualls, C. D.(2007). Anxiety levels in adolescents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0(6), 452-469.
- Blood, G. W., Blood, I. M., Tramontana, G. M., Sylvia, A. J., Boyle, M. P., & Motzko, G. R.(2011). Self-reported experience of bullying of students

- who stutter: 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life orientation, and self-esteem 1.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13(2), 353-364.
- Bloodstein, O.(1995). *A handbook on stuttering*. Chicago, IL: National Easter Seal Society.
- Boey, R. A., Wuyts, F. L., Van de Heyning, P. H., De Bodt, M. S., & Heylen, L.(2007).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like disfluencies in Dutch-speak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2(4), 310-329.
- Brutten, G.(1965). The speech situation checklist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 Brutten, G.(1982). *The Speech Situation Checklist for Children: A discriminant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peech Language and Hearing Association convention, Washington, DC.
- Brutten, G. J.(1985). Communication Attitude Test. Unpublished Manuscript.
- Brutten, G. & Dunham, S.(1989). The communication attitude test: A normative study of grade school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4, 371-377.
- Brutten, G., & Vanryckeghem, M.(2007). Behavior assessment battery for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San Diego, CA: Plural Publishing Inc.
- Craig, A.(1990).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Hearing Disorders*, 55, 290-295.
- Craig, A., Franklin, J., & Andrews, G.(1984). A scale to measure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7, 173-180.
- Craig, A., & Hancock, K.(1996). Anxiety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who stutter. *Australia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 24, 28-38.
- Craig, A., Hancock, K., Tran, Y., & Craig, M.(2003). Anxiety levels in people who stutter: A randomized population stud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1197-1206.
- Davis, S., Howell, P., & Cooke, F.(2002). Socio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who stutter and their non-stuttering classmates. *Journal of*

-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3, 939-947.
- Davis, S., Shisca, D., & Howell, P.(2007). Anxiety in speakers who persist and recover from stuttering,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0, 398-417.
- De Nil. & Brutten, G.(1991). Speech-associated attitudes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66.
- Ezrati-Vinacour, R. & Levin, I.(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 135-148.
- Fitzgerald, H. E., Djurdjic, S. D., & Maguin, E.(1992). Assessment of sensi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in stutt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5, 31-42.
- Fowlie, G. M. & Cooper, B. B.(1978). Traits attributed to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by their moth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 233-246.
- Freud, H.(1966). *Psychopathology and the problems of stuttering*. Springfield, I L: Charles C. Thomas.
- Gladstone, G. L., Parker, G. B., & Malhi, G. S.(2006). Do bullied children become anxious and depressed adults?: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bullying and anxious depress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3), 201-208.
- Gordon, D., Nandy, S., Pantazis, C., Pemberton, S., & Townsend. P.(2003). *The distribution of chil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 Guitar, B. & Grims, S.(1979). Assessing attitudes of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9, 590-600.
- Hancock, K., Craig, A., McCreedy, C., McCaul, A., Costello, D., Campbell, K., & Gilmore, G.(1998). Two-to six-year controlled-trial stuttering outco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1(6), 1242-1252.

- Hanson, B. R., Gronhovd, K. D., & Rice, P. L.(1981). A shortened version of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peech situation checklist for the identification of speech-related anxie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6(4), 351-360.
- Helps, R., & Dalton, P.(1979). The effectiveness of an intensive group speech therapy programme for adult stammer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14(1), 17-30.
- Howell, P.(2013). Screening school-aged children for risk of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8(2), 102-123.
- Hugh-Jones, S. & Smith, P. K.(1999). Self reports of short and long term effects of bullying on children who stamm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2), 141-158.
- James, S., Brumfitt, S., & Cowell, P.(2009).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situation on self-report in people who stu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1(1), 34-44.
- Johnson, W., Darley, F., & Spriestersbach, D. C.(1952). Stutterer's self-rating of reactions to speech situations diagnostic manual in speech correction. New York.
- Kawai, N., Healey, E. C., Nagasawa, T., & Vanryckeghem, M.(2012). Communication attitudes of Japanese school-age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5, 348-354.
- Lankman, R. S., Yaruss, J. S., & Franken, M. C.(2015). Validation and evaluation of the Dutch translation of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for School-age children(OASES-S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5, 27-37.
- Manning, W. H.(2001).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CA: Singular.
- Manning, W. H.(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Albany, NY: Delmar-Cengage Learning.
- Manning, W. & Beck, J. G.(2013). The role of psychological processes in estimates of stuttering severi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8(4),

356-367.

- Mckinnon, S. L., Hess, C. W., & Landry, R. G.(1986). Reactions of college students to speech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9*, 75-82.
- Messenger, M., Packman, A., Onslow, M., Menzies, R., & O'Brian, S.(2015).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stutter: Further investigation of anxie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6*, 15-23.
- Mulcahy, K., Hennessey, N., Beilby, J., & Byrnes M.(2008). Social anxiety and the severity and typography of stutter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3*, 306-319.
- Ornstein, A. & Manning, W.(1985). Self-efficacy scaling by adult stutter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8*, 313-320.
- Plexico, L. W., Manning, W. H., & Levitt, H.(2009). Coping responses by adults who stutter: Part I. Protecting the self and oth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2)*, 87-107.
- Pukacova, M.(1974). Psychologicke charakteristiky balbutikov. *Dsh Abstracts, 14*, 308.
- Ratner, N. B.(1997). Linguistic and self-monitoring skills at the onset of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2(2)*, 112.
- Riley, G. D.(1972). A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7*, 314-322.
- Riley, G.(2009).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Austin, TX: Pro-ed.
- Riley, J., Riley, G., & Maguire, G.(2004). Subjective screening of stuttering severity,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Research edi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1)*, 51-62.
- Ryan, B. P.(1971). Operant procedures applied to stuttering therapy for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6(2)*, 264-280.
- Ryan, B. P. & Van Kirk, B.(1974). The establishment, transfer, and maintenance of fluent speech in 50 stutterers using delayed auditory feedback and operant procedur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1)*, 3-10.

- Silverman, F. H.(1970). Concern of elementary-school stutterers about their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5, 361-363.
- Silverman, F. H.(1996). *Stuttering and other fluency disord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ilverman, E. M., & Zimmer, C. H.(1979). Women who stutter: Personality and speech characteristic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22(3), 553-564.
- Smith, A.(1999). Stuttering: A unified approach to a multifactorial, dynamic disorder. In N. B. Ratner & E. C. Healey (Eds.), *Stuttering research and practice: Bridging the gap*. Mahwah, NJ: Erlbaum.
- Smith, A. & Kelly, E.(1997). Stuttering: A dynamic, multifactorial model. In R. F. Curlee & G. M. Siegel (Ed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pielberger, C. D.(1973). STAIC preliminar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ielberger, C. D.(1983). Manual for the State - Trait Anxiety Inventory(STAI).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rotter, A. C.(1983). *A normative study of the speech situation checklist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 Diego State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 Ullianna, L., & Ingham, R. J.(1984). Behavioural and nonbehavioural variables in the measurement of stutterers' communication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9, 83-93.
- Van Riper, C.(1982). *The nature of stutter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Vanryckeghem, M. & Brutten, G. J.(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d fluency failure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1(2), 109 - 118.
- Vanryckeghem, M. & Brutten, G, J.(1997). The speech-associated attitude of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and the differential effect of ag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6, 67-73.

- Vanryckeghem, M. & Herder, C.(2004). Normative investigation of speech-associated coping behaviors of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ASHA Leader*, 9(101), b14.
- Vergheze, S. S.(2004). The speech situation checklist: A normative and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rlando).
- Wakaba, Y.(1998). Research on temperament of children who stutter with early onset. In E. C. Healy & H. F. M. Peters (Eds.), *Stuttering: Proceedings of the Second World Congresson Fluency Disorders*. Nijmegen,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Nijmegen.
- Weber, C. M. & Smith, A.(1990). Autonomic correlates of stuttering and speech assessed in a range of experimental task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3(4), 690-706.
- Wingate, M. E.(1964). A standard definition of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9(4), 484-489.
- Woolf, G.(1967).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2), 158-171.
- Wuyts, F. L., De Bodt, M. S., & Van de Heyning, P. H.(1999). Is the reliability of a visual analog scale higher than an ordinal scale? An experiment with the GRBAS scale for the perceptual evaluation of dysphonia. *Journal of Voice*, 13(4), 508-517.
- Yairi, E. & Ambrose, N. G.(2005). *Early childhood stuttering for clinicians by clinicians*. Pro Ed.
- Yaruss, J. S. & Quesal, R. W.(2010).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uttering(OASES)*. Bloomington: Pearson Assessments.
- Zimmermann, G. N., Smith, A., & Hanley, J. M.(1981). StutteringIn Need of a Unifying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24(1), 25-31.

<부록-1> 전반적인 주관적 말더듬 중증도

다음의 기록지에 본인의 말더듬 중증도를 스스로 평정할 수 있는 10cm의 선이 있습니다. 선의 양쪽 끝에는 숫자 0과 10을 표시해 두었고, 숫자 0과 10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놓았습니다. 본인이 평소 생각하는 자신의 말더듬의 중증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단, 선 위에 중증도를 표시할 때, √ 표시를 하거나 ○ 또는 X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몇으로 표시하였는지 분석할 때 0에서부터 표시된 선까지 차로 재어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평정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선(|)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과제 당 1개 이상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용>

나는 전혀
 슬프지 않다

나는 매우 심하게
 슬프다

0

10

나는 전혀
 더듬지 않는다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는다

0

10

<부록-2> 과제에 따른 주관적 말더듬 증증도

다음의 기록지에 각 과제를 실시한 후에 본인의 말더듬 정도를 스스로 평정할 수 있는 10cm의 선이 있습니다. 선의 양쪽 끝에는 숫자 0과 10을 표시해 두었고, 숫자 0과 10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놓았습니다. 읽기 과제, 이야기 그림 과제, 말하기 그림 과제 각각을 실시한 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말더듬의 증증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단, 선 위에 증증도를 표시할 때, √ 표시를 하거나 ○ 또는 X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몇으로 표시하였는지 분석할 때 0에서부터 표시된 선까지 차로 재어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평정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선(|)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과제 당 1개 이상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용>

나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

0

10

<읽기>

나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0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

10

<이야기 그림>

나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0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

10

<말하기 그림>

나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0

나는 매우 심하게

더듬었다

10

<부록-3> 아동용 특성불안 척도(TAI-C)

(Spielberger, 1973; 조수철·최진숙 역, 1989)

다음은 잘 읽고, 평소의 여러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평소의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런 일이 없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2	나는 울고 싶다.			
3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4	나는 결심하기가 어렵다.			
5	나는 내 문제에 직접 맞서 다루기가 어렵다.			
6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7	나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8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9	나는 고민이 많다.			
10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1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걱정한다.			
12	나는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가 어렵다.			
13	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14	나는 남이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15	내 부모님에 대해 걱정한다.			
16	내 손에 땀이 젖는다.			
17	나는 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걱정한다.			
18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9	나는 뱃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20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부록-4> 의사소통태도 검사
(Communication Attitude Test-Revised)
(De Nil & Brutten, 1991; 차 현·전희정 역, 2013*)

이름 : _____ (남/여) 검사일 : _____ 생활연령 : _____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답해주세요. 만약 말하는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틀리다고 생각되면 “아니오”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신의 말에 대한 문항에 동의하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좋거나 나쁜 대답이 없어요. 단지 자신의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요.

연습을 해 볼게요. 다음의 문장을 읽고 자신의 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예” 또는 “아니오”에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너무 빨리 말한다	예	아니오
나는 충분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질문이 있나요? 만약 문장이나 문장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 | | | |
|-------------------------------------|---|-----|
| 1. 나는 말을 잘 못해요. | 예 | 아니오 |
| 2. 나는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해요. | 예 | 아니오 |
| 3. 나는 말할 때 가끔 말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 예 | 아니오 |
| 4.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해요. | 예 | 아니오 |
| 5.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다른 애들보다 더 어려워요. | 예 | 아니오 |
| 6.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웃기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예 | 아니오 |
| 7.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좋아요. | 예 | 아니오 |
| 8. 사람들이 가끔 나 대신 내 말을 끝맺어 줘요. | 예 | 아니오 |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예	아니오
10.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니오
11. 나는 언제나 말을 잘해요.	예	아니오
12.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아니오
13.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않아요.	예	아니오
14.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예	아니오
15. 나는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아니오
16. 내 말은 쉽게 잘 나와요.	예	아니오
17. 나는 낯선 사람들과 말할 때 말이 더 안나와요.	예	아니오
18. 다른 아이들이 나처럼 말을 하고 싶어해요.	예	아니오
19. 내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놀려요.	예	아니오
20. 나는 말하는 것이 쉬워요.	예	아니오
21.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아니오
22. 말하기 어려운 낱말이 많아요.	예	아니오
23. 나는 거의 모든 사람과 말을 잘 해요.	예	아니오
24. 나는 가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아니오
25. 나는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아요.	예	아니오
26. 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아니오
27.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오
28. 나는 낱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예	아니오
29. 나는 전화로 이야기할 때 말이 잘 나와요.	예	아니오
30.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아니오
3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말하게 해요.	예	아니오
32. 나는 수업시간에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쉬워요.	예	아니오

*차 현(2015).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과 의사소통태도 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